

# 히스패닉 사회의 이해

여섯째마당  
미국과 라틴아메리카

담당교수: 이재학

# 미국과 라틴아메리카

- 한 마리 고양이와 스무 마리의 쥐 (한 마리 코끼리와 스무 마리의 개미)
- 미국의 앞마당
- 1832년 몬로 독트린 => 신대륙(미국)의 구대륙(유럽)에의 개입 불가, 구대륙(유럽)의 신대륙(라틴아메리카문제)에의 개입 불가 천명 (=> 1904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26대 대통령, 먼로주의 더욱 확장해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경제, 군사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)
  - =>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독점적 지위 확보 목적
  - => 아메리카의 경찰관 자처(불량배를 체포하는 경찰관 자임)
  - => '명백한 운명론', 미국의 우월한 자유민주주의제도, 경제 시스템을 라틴아메리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확산시켜야 함 (=> 21세기 부시의 이라크 침공)

-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타국에 대한 '불간섭원칙' 강조
  - => 국제법 제정=> 미국배제 노력
  - => 현실적으로 불가능
  - => 지속적인 미국의 무력시위와 군사개입
- 1961년 쿠바 카스트로 정권 전복 위한 피그만 침공
- 1965년 미 해병대 파견, 도미니카 공화국의 보수 정권 전복
- 1973년 칠레 피노체트 쿠테타를 배후에서 지원
- 1979년 니카라구아의 산디니스타 혁명 후 공산 정군 붕괴를 위해 소모사 독재를 보유했던 방위군 주축의 콘트라 반군 지원

- 레이건 정부의 엘살바도르 내전 개입(위대한 미국 건설)
- 1983년 10월 카리브해의 소국 그라나다 미 해병대 1만5천명이 침공
  - => 30여명의 미국학생들의 신변안전도모, 니카라구아의 산디니스타 정부에 경고성 공격
- 1989년 12월 21일 2만3천명의 미 해병대 파나마 침공, 반미정책 펼친 노리에가 체포
  - (독재자<=>파나마 운하 반환 노력, 파나마 민족주의 강화노력)
  - => 마약밀매혐의로 플로리다 법정에서 유죄판결
-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에스코바(Medellin 기반)

- 중국, 러시아, 인도, 이란 등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지분 확대 위해 노력 중=> 먼로주의의 종언 예고?
- 미국의 독점적 영향력 쇠퇴
- 중국의 영향력 급속히 확대=> 2003년 이후 중국과의 교역은 연평균 40%씩 폭증, 라틴아메리카 지하자원 싹쓸이
- 인도의 라틴아메리카 투자규모 확대 중
- 러시아- 반미 노선을 걷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군사, 외교적 협력관계 구축노력, 2008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(Medvedev) 대통령의 라틴아메리카 순방 (러시아 “라틴아메리카에 반미벨트 구축”노력-2008년 10월 6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)
- 반미 지도자인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(Ahmadinejad) 대통령의 두 차례 라틴아메리카 순방, 반미성향 지도자들 측면지원

- 2009년 5월, 힐러리 국무장관=> “이란과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얻는 이득을 보고 있자니,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(disturbing)”=> 오바마 행정부,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콜롬비아에 미군 주둔 결정=>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시도
- 21세기의 새로운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 모색
- 라틴아메리카 ‘메르코수르(MercoSur/남미공동시장)’, ‘안데스공동체(CAN)’ 결성=> 경제블록화, 정치, 외교 블록화 움직임, 좌파정권연합, 대중국 및 대유럽연합 연대강화
- 2007년 12월9일 , 브라질, 베네수엘라, 아르헨티나, 볼리비아, 에콰도르, 파라과이 등 6개국 정상=> 남미은행(Banco del Sur) 설립 협정서에 서명=> 과거 미국이 주도하는 IMF 및 세계은행 등이 금융 구제를 내세워 고통스러운 긴축재정 강요했던 것에 반발=> IMF에서 독립선언=> 2008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던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남미경제 성장에 의한 자신감 반영

- '포스트 아메리카 시대' 대비=> 2008년 5월 25일 남미국가연합(우나수르) 창설을 위한 협정서에 서명=> 2019년까지 EU 수준의 통합 목표
  - => 친미, 친시장적 칠레, 콜롬비아, 페루, 브라질 vs. 반미성향 강한 베네수엘라, 볼리비아, 에콰도르, 아르헨티나 간의 정책 조율이 관건
- 2008년 여름에 발생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=> 남미에 직격탄

- 2008년 가을 미국 금융위기=> 남미 좌파 정권의 미국에 대한 승리감=> 전 세계 확산=> 남미 국가들 심각한 타격=> 채권가치 급락, 주가 폭락, 원자재 가격 폭락, 대 중국 수출에 심각한 타격=> 높은 인플레이 재현 우려=> 국가적 위기감 (2008년 10월 4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)
- 2008년 11월=> 미 대선 오바마 당선=> 신자유주의 무역 비판,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논의, 시장에서의 정부개입=> 큰 정부, 재정적자, 높은 실업률, 건보개혁 등에 반발=>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패배
- 앵글로 아메리카=> 신교도, 개인주의, 이성적, 논리적, 운명예정론, 다윈의 진화론
- 라틴 아메리카=> 가톨릭, 가족중심, 비논리적, 감성적, 자유의지



# 한국과 라틴아메리카

- 남미 좌파정권 => 메르코수르(MercoSur)
- 남미경제 블록화
- 21세기 변화하는 남미의 정치·경제 질서
  - => 미국배제 노력
  - => EU, 중국 등과 경제·외교적 협력 모색
  - => 러시아, 경제성장 발판으로 남미에 관심
  - =>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국, 러시아, EU 경제위기
  - => 남미의 독자 생존의 어려움
- 중국의 남미 식량 및 지하자원 싹쓸이 현상
- 한국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(FTA 선점효과=> 신문기사)
- 태평양 연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APEC에 대한 높은 기대감  
(2012년 6월 태평양 동맹 'Alianza Pacífica' 결성- 멕시코, 콜롬비아, 칠레, 페루)
-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높아지는 극동 아시아(중국, 홍콩)와의 경제협력 노력

- 한국의 메르코수르에의 진입?=> 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관건
- 노무현 대통령 남미순방
  - => 과거사 청산 관련 발언
  - => 노무현 대통령 북핵 관련 LA 발언(2004년 11월13일) => 미 대북 강경책에 제동 걸기
  - "무력행사, 봉쇄 정책 반대" 강조
  - 재선된 부시에 보낸 첫 메시지
- 남미 시장=> 풍부한 식량 · 지하 자원, 낮은 산업기반, 높은 공산품 수입 의존도, 중 · 저가 상품에 대한 구매력
- 북미 멕시코 시장 및 중미 시장
  - => 미국 · 캐나다 ·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, 중미 카리브해 국가들의 대미수출 전초기지 역할
-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히스패닉 인구의 높아지는 구매력
- 앵글로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히스패닉들의 소비 트렌드